

거점국립대, 정성평가와 성실성이 승부처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지형이 2028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수능 선택과목 폐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입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전국의 주요 거점국립대학교들은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업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했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는 기존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이 차지하던 상위 4%의 범위를 10%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내신 성적의 상향평준화를 초래해 대학 입장에서는 단순 등급만으로 학생의 학업 우수성을 변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응해 거점국립대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등급 점수와 성취도 점수를 결합하는 정교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1등급(5.0점)을 받더라도 성취도에서 A가 아닌 B를 받게 되면 최종 합산 점수에서 감점이 발생한다. 즉,

내신 등급 숫자를 넘어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취도인 'A'를 유지하지 못하면 합격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변별 포인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단순히 등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절대평가 과목에서도 완벽한 성취를 거두어야 한다. 또한, 대학들이 교과 종합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이수율의 충실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통해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로 탐구 과정을 입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수능 성적 100% 반영이라는 전통적인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의 변별력 약화 우려 속에 주요 거점국립대들은 정시에서도 고교 생활의 성실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부산대학교는 2028학년도부터 실기 제외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80% + 학업충실도 평가 20%' 방식을 도입하며, 경북대학교 역시 정시 가군에서 교과 성적을 10% 반영한다. 이는 정시를 주력으로 준비하는 N수생이라 하더라도 고교 시절의 출결이나 교과 이수 노력이 부족할 경우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지방 소멸과 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대규모로 신설되

나 확대됐다. 충북대(49명), 강원대(49명), 전북대(42명) 등은 수시와 정시를 아울러 지역의사를 선발하며, 이는 지역 내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강원대학교처럼 해당 지역 내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등 지원 자격이 매우 엄격하므로 조기에 요건을 확인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엄격하게 반영된다. 부산대학교는 학폭 1~3회 처분 시 전형 총점 1000점 기준 300점을 감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합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이다.

2028학년도 거점국립대 입시는 단순히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고교 생활 3년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 평가 체제로 진화했다. 수험생들은 통합형 수능 체제에 맞춰 문·이과 구분 없는 균형 잡힌 학습 스케줄을 수립하는 동시에, 대학의 정성평가 기준에 맞춰 자신의 진로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인 과목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 거점국립대학교는 이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역량 있고 성실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J/JSB전진학연구소장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 (음 3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0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72년생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84년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9년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61년생 과속에 절대 주의하세요. 73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85년생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50년생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작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쉽게 믿지 마세요.



51년생 소꿉친구 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63년생 몸이 건강해져 마음도 건강합니다. 75년생 안정을 취하고 다음을 위해 힘을 비축하세요. 87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52년생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4년생 동쪽으로 가면 바라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88년생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53년생 야외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65년생 어릴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77년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89년생 모든 일에 노력을 하세요.



54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66년생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78년생 언행에 주의하세요. 90년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55년생 현재에 만족하세요. 67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79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91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56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68년생 끝까지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80년생 남의 작은 행복을 시기하지 마세요. 92년생 무엇이든 만사형통한 좋은 운입니다.



57년생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69년생 오늘이 바로 길입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93년생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단기간이지만 필요한 인원치로도 봉사해야 합니다. 70년생 전업은 지금은 길하지 못합니다. 82년생 부지런히 여러 곳을 뛰어 다녀야 합니다. 94년생 뜻밖의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9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71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5년생 좋은 사람에게 편잔을 주지 마세요.

신들린 'GDP'와 KOSPI



김 언 세
(정책사회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6% 포인트(p)나 올렸다. GDP(국내총생산)가 작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국제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 상황에 가세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평균만 봐도, 8개 주요 IB가 제시한 평균치가 2.4%에 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만 1.7%(직전분기 대비) 성장했다. 현재 기준 주요국 중간순위 1위가 바로 한국이다. 경제대국 미국·중국, 인구대국 인도네시아까지 제쳤다. 비록 연간 집계는 아닐지

언정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개국 중 선두에 올라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중간집계 1위다. 이날까지 수치를 공개한 OECD 20국 가운데 한국만 유독 1% 선을 넘겼다. 다만 아직 안 나온 18개국 수치를 지켜봐야 한다. 어쨌든 유럽연합(EU) 국가들 평균은 0.1%에 머물고 있다. OECD에선 한국뿐이지만 G20에선 1%대가 보고됐다. 중국이 1.3%, 인도네시아가 1.4%였다. 반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간접으로 휘말린 사우디아라비아의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5% 줄었다. 경기가 후퇴한 것.

OECD 내 개도국 회원국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1.7%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0.3%, 체코 0.2%, 리투아니아 -0.4%(역성장), 멕시코 -0.8%(역성장) 등

이다. 또 유럽 주요국 중 아일랜드의 경우, 일시적이지만 -2.0%의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1분기 속엔 중동 사태의 영향의 일부 자리 잡았다. 2월 말 터진 전쟁은 3월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기의 턱을 토포한 듯하다. 중동전이 없었다면 2%를 넘었을 수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놀랍다. 마치 마이클 펠프스나 우사인 볼트가 신기(神技) 부리는 것 같다. 자기가 보유한 세계 기록을 자기가 갈아 치우는 모습이다.

성장률도 주가도 뭔가 정상(正常)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환율 1400원대 후반, 국제유가 100불·휘발유 2000원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 GDP와 주가의 직진이 맞는지, 어울리는 옷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세종=kys@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전 세계의 사면들

뉴스를 보니 코리아사면에 빠진 외국인 MZ들이 화제였다. 영적 체험으로 서울 근교의 기도 터로 알려진 인왕산 굿당에 줄을 선다는 것이다. 연이은 내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목적이 쇼핑이나 미식, K-팝 공연 관람을 넘어 이제는 점을 보러 한국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K-샤머니즘'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했다."라고 했다. 세상에나! 시절이 변해도 이렇게 변했나 싶다. K-Pop, K 드라마 등 한국 음악과 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잡고 있지만, 무속적인 면까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더니, 사람의 인식 속에 음지에 속하던 무속신앙이 훌륭한 문화콘텐츠로서 위상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열풍을 통해 샤머니즘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거의 모든 문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이들은 제사장이었다. 무한한 초월적 존재인 천신들, 더 나아가 우주와의 소통 능력을 지닌 제사장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우려했던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통자였고,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었다. 과학 발달이 농본 위주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관장하던 역할에서 개인의 운명이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생계인 것으로 격하되었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샤머니즘이었다. 서양에도 사면은 생각보다 많다. 크리스털 점 타로점 최면을 통한 점부터 점성술사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고 레이건대통령 낸시 여사의 점 사랑은 너무도 유명하다. 양지에 속하는 제도권 종교권에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전 세계의 사면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 해결사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9	4	3		1		7
5			9			8	3	
			1					8
		3	7					
9								3
					4	9		
	7				3			
		6	3		2			4
3	2		9	1	8	7	6	

2	3		9	5		6	8	4
1		8						7
						2		
			3	7				2
5		9				4		3
7				6	1			
		3						
	1					7		6
6	8	2		4	3		9	1

9	2	8	1	6	5	2	7	3
7	1	9	2	8	6	9	6	8
8	6	2	8	7	9	5	2	1
1	6	7	9	2	8	9	2	1
8	9	7	1	9	8	1	2	6
9	2	9	6	8	2	8	1	7
6	8	2	9	7	1	7	9	9
2	7	8	1	6	2	9	9	
2	9	1	9	8	7	6	8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